

환경 훼손하는 불사 '그만'

교불련, '사찰환경 개선 대안모색' 세미나... "불자 사찰환경 교육 시급"

2월 15일 SBS 뉴스에서는 부산 기장의 한 사찰이 계곡 암벽을 뚫어 동굴 법당을 만들고 계곡까지 마구 잡이로 개발하는 사례가 보도됐다.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도 8각10층세존사리탑과 사적비 건립 등 잦은 불사로 도랑의 균형이 틀어진 지 오래다.

사패산·천선산 등부터 최근 4대강 사업 반대까지 자연 및 수환경 보전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균형을 잃은 불사나 사찰에 의한 환경훼손 사례가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 '중장불사' '대작불사'라 불리며 성행하는 불사가 사찰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교수불자연학회(회장 최용춘)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외국사찰 환경 비교를 통한 국내 사찰환경개선 대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홍광표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 '사찰환경 개선방안 연구'에서 "무분별한 불사가 사찰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

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를 위해 홍 소장은 1월 19일~2월 2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새로운 건물의 건축(16.1%)과 진입로와 마당(15%), 차량도로(12.8%) 등을 사찰 경내의 환경훼손 유형으로 지목했다. 사찰에 지어진 석조물의 문제점으로는 분위기나 격식에 맞지 않는 석등이나 탑(25%), 과거와는 다르게 다듬은 석재(22.2%), 벤치 등 휴게시설(17.2%)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사찰환경 훼손이 사찰에 주저하는 스님, 종무원(27.8%)과 사찰 신도(19.4%), 관광객(14.4%) 순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홍 소장은 "설문결과를 탐과 석등이 신앙의 대상이라고는 해도 사찰에 전승된 형태가 아닌 것은 환경훼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단과 석단도 전통적이지 않으면 환경훼손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홍광표 소장은 "중장불사를 통해 새로운 건축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 경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현재 전통사찰에서는 석축만 변경하려해

도 현상변경 심의가 필요한데 이런 법규만 잘 지켜도 사찰환경 훼손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계의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낮은 인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설문 결과 '사찰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38.9%였으나 '문제가 없다'(23.7%), '모르겠다'(21.7%), '관심없다'(8.3%) 등의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며 "불자들조차도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관심이 낮은 만큼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의 활성화가 사찰환경 훼손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홍 교수는 "템플스테이 실시 사찰마다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과 화장실을 신중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있다"면서 "전통사찰의 수용용량을 초과한 무분별한 시설물 증축이 사찰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준 우석대 교수도 해인사 구광루를 예로 들며 잘못된 불사에 의한 사찰환경 훼손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해인사 구광루는 과거 누하진입 공간이었으나 불사를 통

해 좌우 계단진입형태로 바뀌어 옛스러움이 사라졌다"며 "누하진입 형태인 영주 부석사 안양루가 주는 경관미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 설명했다.

정기호 성균관대 교수는 "사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철거와 환원'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마구잡이로 덮어쓴 콘크리트 도로포장과 경계부를 원래의 모습 또는 자연스러운 마감으로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스님과 종무원부터 사찰환경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불사에 앞서 전문가 조언을 구하거나, 조계종 총무원에 (가칭)불사 위원회를 구성하면 불사 전 심의를 통해 사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마경>에서는 "공은 마음이 도량이고 공은 마음이 정도"라고 했다. 모두의 마음에 드는 도량을 가꾸기 위해서는 "잘못된 불사는 부처님 도량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의식부터 갖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 해의 서원을 담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정월 초사흘인 2월 16일부터 전국 사찰에서 정초기도법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한 해의 소망과 서원을 부처님 앞에서 합장 발원했다. 17일 서울 조계사 '정초 7일 기도'에 참석한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박재원 기자

15대 총무원장 선출

천태종 3월 28일

천태종이 3월 28일 제15대 총무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종정중심제인 천태종의 총무원장 선출은 3월 중 종정 도움 스님의 지명 이후 종의회 인준과 임명식으로 진행된다.

제15대 총무원장에는 2006년 3월 전 총무원장 운덕 스님의 사퇴 이후 전여임기 3년을 성만한 현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東大 약대 신설 1차 심사 통과

교과부 통보... 26일 최종 발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증원을 앞두고 동국대 등 19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약대 신설 대학 선정에 관한 1차 심사 결과를 18일 공개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차 심사에는 경기 지역 9개 신청 대학 중 동국대를 비롯한 가톨릭대 캠퍼스, 아주대 차의과대, 한양대 캠퍼스 등 5개 대학이 통과했다. 또, 인천 지역 3개 대학, 충남 지역 4개 대학, 전남 지역 3개 대학, 경남 지역 2개 대학, 대구 지역 2개 대학 등도 각각 통과했다.

조동섭 기자

'승려 사유재산' 명

내부 반발로 연기

조계종이 추진 중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명'이 승단 내부의 반발로 연기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승)은 22일 예정된 총무원회에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명' 시행 연기나 보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1월 21일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명(제정)'을 공포한 이래 문의와 항의전화까지 끊이지 않았다"며 "종단 구성원으로부터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사항을 해소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신계사 성지순례 '위기'

18일 실무접촉 통일부 불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남북 성과물 중 하나인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조계종은 19일 "신계사 성지순례의 실무접촉이 18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통일부의 불허 방침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의 신계사 성지순례

경색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것으로 평가받아왔던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는 3월 경 5000여명 규모의 108산사순례단이 3차에 걸쳐 봉행되는 안이 추진돼 구체적인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통일부의 신계사 성지순례

실무접촉 불허에는 자승 스님의 남북 이후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것으로 평가받아왔던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는 3월 경 5000여명 규모의 108산사순례단이 3차에 걸쳐 봉행되는 안이 추진돼 구체적인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통일부의 신계사 성지순례

- ▶6 현장-아이티
- ▶14 선지식-총림 스님
- ▶8 인터뷰-보광 스님
- ▶23 강의실-김형호

Seoul Summit

THE YEONGSANJAE CEREMONY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20 정상회의

2010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영산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2010. 3. 11 (목) 오후 2시

주관 : 2010영산재 봉행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초대의 글

불, 법, 승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지점에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봉행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국제적인 회의이고 단군 이래 최고의 경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 자격에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태고종의 총본산 봉원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관리하는 '영산재'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10영산재"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예술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법요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2010년 2월
2010영산재봉행위원회장 박인공 합장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전국신도회장 인사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는 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유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우뚝 서게 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합장

2010영산재봉행위원회(02-739-345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02-392-3007), 태고종전국신도회(02-720-3133)